



“올해 쓴맛 야구, 내년엔 단맛 봐야죠”

필승조로 비상 꿈꾸는 KIA 투수 신창호

올 겨울 ‘호랑이 군단’의 유일한 새신랑 신창호(27)에게 2014년은 특별한 해였다. KIA 투수 신창호가 21일 오후 12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배라체육센터에서 신부 임지현(28)씨와 결혼식을 올린다. 4년 전 지인의 소개로 만난 신부와 백년가약을 맺게 된 신창호는 이번 겨울 KIA 선수 중 나홀로 청첩장을 돌렸다.

신창호는 “올해는 팀에서 유일하게 나만 결혼을 하게 됐다. 가장이 된다고 생각하니 책임감이 막중하고, 내년 시즌에 대한 각오가 남다르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 사람의 남편으로 새출발을 하게 된 2014시즌은 신창호에게 많은 가르침을 준 해이기도 하다. 2006년 프로데뷔 후 가장 많은 27경기에 나와 38이닝을 소화했다.

신창호는 “공부를 많이 한 해다. 이렇게 1군에 오래있었던 것도 처음이었고, 경험도 많이 쌓았다. 내년 시즌을 더 잘 준비할 수 있는 해가 됐다”고 설명했다.

희려한 1군 생활은 아니었다. ‘패전조’가 신

2006년 고교졸업 후 LG서 프로데뷔
망출·독립리그 거쳐 KIA 신고선수 입단
올 시즌 불펜서 패전조 뛰며 심기일전
“가장으로서 진일보 하는 야구 하겠다”

창호에게 주어진 역할. 프로데뷔 후 9년 만에 첫 선발 등판 기회를 얻었지만 2.2이닝 9실점의 뼈아픈 기록을 남기기도 했다. 하지만 야구에 대한 간절함이 있기에 모두 빛나는 경험이었다.

신창호는 “롯데전에서 3이닝을 잘 던지면서 선발 기회를 얻었다. 결과는 좋지 못했지만 좋은 경험이었다.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를 알았다. 컨트롤도 완벽하게 안 됐고, 힘으로 하려고 해서 어려운 승부를 했다. 2군 선발 경험이 있기는 했지만 1군에서 던지는 것과 운영에서는 차이가 있었다”고 말했다.

실패 속에서 배우고 있다는 신창호는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다. 신창호는 2006년 경동고를 졸업하고 LG의 2차 1라운드 전체 3순위로 프로에 데뷔

한 유망주였다. 그러나 2008시즌이 끝난 뒤 LG에서 방출되면서 현역으로 군대를 다녀왔다. 이후 독립리그에서 뛰면서 그라운드와 꿈을 놓지 않았던 그는 2012년 신고선수로 KIA 유니폼을 입는 등 사연이 많다.

신창호는 “막 프로에 왔을 때는 철이 없었다. 지명도 높게 받고 했으니까 무조건 1군에 있을 줄 알았다.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어린 선수였다”며 “소심하고 앞에 나서지도 못했는데 군대를 다녀오면서 성격이 많이 바뀌었다. 무엇보다 어려움을 겪으면서 야구를 열심히 하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절실함이 있기 때문에 마운드에서 피하지 않고 자신감 있게 승부를 하고 있다는 신창호. 올 시즌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 시즌 필승조로 도약하는 게 그의 목표다.

신창호는 “위기도 있었고, 힘든 시절도 겪었다. 내년에는 가장으로서도 더 열심히 해야 한다. 팀에 도움이 되는 선수가 되고 싶다. 변화구 제어력을 가다듬고, 스피드를 조금 더 올려야 한다. 필승조를 목표로 내년 시즌을 준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포수 차일목 KIA 잔류 2년 4억5000만원 계약

FA를 신청했던 포수 차일목이 2년 4억5000만원에 KIA에 잔류한다. KIA 타이거즈가 18일 포수 차일목과 계약기간 2년 계약금 1억5000만원, 연봉 1억5000만원 등 총 4억5000만원에 FA 계약을 맺었다. 타구단과의 협상 기간 빈손으로 돌아왔던 차일목은 이번 계약으로 KIA 선수로 계속 뛰게 됐다. 좌완 저스틴 토마스는 KIA와 인연을 잊지 못했다. KIA는 이날 KBO(한국야구위원회)에 토마스의 자유계약공시를 신청했다. KIA는 대체 외국인 선수를 물색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내년 목표도 日 구원왕” 형 만한 아우들 ‘광주일고’

오승환 광서 개인훈련...“ML 진출, 시즌 이후 생각”

야구대제전 지원금 등 400만원 모아 차영화 코치 돕기 전달



만원)의 조건에 한신과 계약했다. 일본 진출 첫해 2승 4패 39세이브 평균자책점 1.76으로 구원왕에 오른 오승환에게 2015년은 무척 중요하다. 그는 2015시즌 종료 뒤 자유계약선수가 된다. 한신 잔류, 일본 내 이적, 미국 진출 등 다양한 선택지가 있다.

일본 언론은 벌써 오승환의 FA 자격 획득 후 거취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오승환이 지난달 13일 귀국 기자회견에서 “여기가 도전의 끝은 아니다. 한신과 계약기간이 1년 더 남았다. 그 사이 내 부족한 점을 보완해 메이저리그에 진출하게 된다면 가서 제대로 싸우고 싶다”고 포부를 밝히면서 더 시끄러워졌다.

일본 산케이스포츠는 18일 “오승환 연봉 계약서 작성을 위해 곧 한국으로 들어가는 구단 관계자가 오승환과 만나 메이저리그 진출 발언의 진위를 확인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오승환은 메이저리그 진출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일단 일본에서 계약 기간에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먼저 밝힌 후 “모든 선수가 더 큰 무대에서 뛰고 싶어 한다”고 했다.

“메이저리그 진출이 강한 동기부여는 되지만 2015시즌이 끝날 때까지는 현재 뛰는 일본 프로야구에 전념하겠다는 것”이 오승환의 생각이다.

한신 관계자는 20일 한국으로 돌아와 오승환과 2015시즌 연봉 계약을 할 예정이다. 2013년 말 2년 계약을 할 때 이미 2015시즌 세부 사항까지 협의를 마친 터라 이번 계약서 사인은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다. 한국과 일본 모두 다년 계약을 해도 매년 연봉계약서를 작성한다.

벌써 일본 언론에서 ‘2015년 시즌 뒤’를 거론하지만, 오승환은 2015년 시즌에만 집중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4 야구대제전 우승팀 광주일고(교장 양정기)가 병상의 선배를 위해 정성을 모았다. 야구대제전 참가 지원금과 찬조금 등 400만원을 모아 낙상사고로 병상에 있는 차영화 KIA 코치와 폐암으로 투병중인 선배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광주일고는 얼마 전 마산에서 끝난 야구대제전에서 이호준(NC)을 중심으로 막강 팀워크를 발휘하며 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이호준과 최희섭·심동섭·신종길·백세웅(이상 KIA), 서건창(넥센), 모창민(NC), 윤여운·김대우(이상 롯데) 등의 현역 프로야구 선수들은 모교 유니폼을 입고 야구 명문팀의 위상을 보여줬다. 현역 선수들의 지원 속에 광주일고는 우승과 함께 1000만원의 학교발전기금을 가져왔다. 여기에 이번 대회를 통해 모교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 담긴 400여 만원도 모았다.

재학생과 프로 현역선수, 은퇴선수 등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되자 김기태 KIA 감독이 300만원 가량을 경비에 보태 쓰라며 보냈다. 이강철 넥센 수석코치, 정희열 KIA 2군 감독, 허세환 인하대 감독, 차동철 건국대 감독 등도 찬조금을 보내 광주일고의 질주를 도왔다.

후배들은 알뜰하게 경비를 아껴 400여 만원을 만들었고, 이 돈을 병상에 있는 선배들을 위해 쓰기로 결정했다. 광주일고 김진섭 감독은 “(이)호준이가 프로에들한테 전화도 돌리고 해서 많이 참여했다. 선배들도 이번 대회를 계기로 일구회를 다시 활성화하고 모교와 야구 발전을 논의하자는 취지의 얘기를 많이 하셨다”며 “많은 분들이 경비를 지원해주셨는데 당일치기로 이동을 하는 등 돈을 아껴서 400여 만원 정도가 남았다. 의미있는 돈을 의미 있게 쓰기로 해서 19일 병문안을 갈 생각이다. 쾌유를 빈다”고 말했다.

/김여울기자 wool@

일본 프로야구 센트럴리그 구원왕 오승환(32·한신 타이거즈)이 이달 말부터 광에서 개인훈련을 시작한다.

2014시즌이 끝난 뒤 한국에 돌아와 트레이닝장에서 체력 훈련에 집중하던 오승환은 27일 광으로 떠나 2015시즌 준비에 들어간다.

지난해까지 한국 프로야구 최고 마무리로 군림한 오승환은 올 시즌을 앞두고 2년 최대 9억엔(약 93억 7000